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3. 10. 1 ~ 10. 9(8박9일)
- 방 문 국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연 수 단 : 16명(의원12명, 공무원4명)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연수개요

1. 연 수 국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2. 연수목적

선진 유럽의 지방의회 운영과 다양한 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럽의 사회복지, 교통, 문화예술, 환경관리 실태 등을 견학하여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 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03. 10. 1. ~ 10. 9(8박 9일)

4. 보고서 작성자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1	구미시의회	윤영길의장	9	산업건설위원회	손홍섭의원
2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의원	10	“	김익수의원
3	“	백옥배의원	11	“	정성기의원
4	“	임성수의원	12	“	박배원의원
5	“	전인철의원	13	사무국장	채 동 익
6	“	이필봉의원	14	전문위원	임 경 도
7	“	김택호의원	15	행정7급	이 영 길
8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호의원	16	기능9급	문 수 진

목 차

I. 서	론	4
1. 연 수 의	배 경	4
2. 연수의	세부내용	4
3. 연 수	일 정	5
II. 본	론	6
제1절	프 랑 스	6
1. 개	요	6
2. 지방자치제도		7
3. 교 통 분 야		9
4. 환 경 분 야		12
5. 상 수 도 분 야		15
6. 하 수 도 분 야		15
7. 사회복지분야		18
8. 교 육 분 야		19
9. 국공립도서관분야		20
10. 기 타 분 야		27

제2절 스 위 스 ----- 30

1. 개 요 ----- 30

2. 사회문화분야 ----- 30

3. 환 경 분 야 ----- 31

4. 기 타 분 야 ----- 32

제3절 이탈리아 ----- 33

1. 개 요 ----- 33

2. 지방자치제도 ----- 33

3. 사 회 의 특 징 ----- 35

4. 교 통 분 야 ----- 35

5. 환 경 분 야 ----- 38

6. 사회복지분야 ----- 39

7. 건 축 분 야 ----- 39

8. 교 육 분 야 ----- 40

9. 기 타 분 야 ----- 40

Ⅲ. 결 론 ----- 44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서 론

1. 연수의 배경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운영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주민 복지사업 및 문화유산보존 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접목시켜 의회발전과 지방의원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연수의 세부내용

-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제도 분야
 - 선진 지방의회제도 운영시스템 실태 비교분석
- 도시계획시설분야
 - 교통신호체계, 도로시설, 녹지공간조성관리
 - 공공시설물(도서관 등) 관리
 -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 문화·관광분야
 - 문화유산 보존실태, 관광자원화
 - 교육제도 등
- 사회복지제도 및 환경시책
 - 사회복지제도
 - 시가지 청소 및 가로 환경조성 등

3. 연수일정

일자별 (요일)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0. 1 ~ 10. 4	프 랑 스 파 리	• 자치제도 및 지방의회운영제도 • 국립 도서관 운영관리 • 공공 도서관 운영관리 • 하수처리장관리실태 • 도시계획시설관리실태 • 문화재 및 관광관리실태 • 사회복지제도, 가로환경시책 등	
10. 4 ~ 10. 5	스 위 스 로 잔 인터라겐	• 사회, 환경분야 • 관광관리실태 • 사회복지제도, 가로환경시책 등	
10. 5 ~ 10. 9	이탈리아 로 마 나 폴 리 폼 페 이 소 렌 토 피 렌 체	• 자치제도 및 지방의회운영 • 교통 · 환경 · 사회복지분야 • 도시계획시설관리실태 • 문화재 및 관광관리실태 등	

II. 본 론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유럽의 지방의회 운영과 다양한 지방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연구하고,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접목시켜 자치발전과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및 주민복지 제도를 중심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 1~10. 9까지(8박9일간)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 연수단은 계획대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연수기간동안 습득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국가별로 각 나라의 의회제도와 사회복지제도, 환경, 교통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프 랑 스

1. 개 요

- 예술과 패션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는 1인당 GNP가 21,000달러로서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전되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파리는 소형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어 검소한 국민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으며,
- 또한, 유럽 제1의 면적을 가진 프랑스는 공업국이자 농업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연간 110억 달러의 수출, 수입에서 70억 달러를 하여 연간 40억 달러의 흑자 농업국이다
- 이외에도 뛰어난 과학기술, 스포츠 강국으로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에 만연된 미국문화로부터 가장 강하게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2. 지방자치제도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는 기관통합형을 취하되 행정기관 우월주의에 입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기초자치단체(코뮌), 광역자치단체(데파르트망), 주(레지옹)의 3가지 행정단위에 의한 3계층제이다. 각각 국가의 행정구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로서 군과 칸톤이 있다.

①기초자치단체(commune 코뮌)

○파리의회

파리의회는 코뮌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도를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직무는 일반 시의회와 비슷하나 특히 예산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다

파리의회는 매년 11~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파리시장(시의회회장겸직)에 의해 의사일정이 공고되고, 시장과 도지사는 테러행위나 자연재해, 도시계획관련 정책보고시 구두로 진술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구두질의도 회의에서 심의된다.

②광역자치단체(departement 데파르트망)

데파르트망은 국가행정구획이며 동시에 국가의 각종 지방 일선기관의 관할구역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관으로는 광역의회와 광역의회 의장이 있다.

③주(region 레지옹)

레지옹은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 광역적인 행정구획이다. 주에는 집행기관인 주의회, 주의회 의장외에 자문기관으로서의 경제사회위원회가 있다.

◀ 파리시청사 전경 ▶



◀ 파리시청 민원실 ▶



3. 교통분야

- 도로 50m구간마다 지하철역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고속지하전철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통난, 주차난으로 대부분 소형차를 운행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신호대의 신호등은 상하 2개부착, 승용차.보행자용, 대형차용구분, 人道에는 프랑스풍의 광고탑, 유료화장실, 버스승강장, 햇빛을 쏘이는 노천카페,마로니에 가로수, 가로등, 공중전화박스, 규격화된 상점(신문, 잡지, 기념품 등 판매)이 있다.
- 도로의 중앙선은 흰색, 1,2,3차선의 분리가 없고 교차로등 진입.대기 장소에만 차선설치하고 황색선은 없다.
- 시내 주요방향 표시, 지명표시등은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높이로 제작하여 불이 들어와 있어서 찾기가 쉬웠다.
- 프랑스는 지하철 ,고속철간에 가격이 같았으며 개인들이 불법으로 이용을 해도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단속반은 따로 이용하고 있어 간혹 단속을 하되 적발될 시 벌금도 2만원정도 라고 하니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 파리 비지트(Paris Visite)

- 티켓 하나로 파리에서 전철과 버스, 고속 전철, 몽마르트의 케이블카, 몽마르트 버스, 심야 버스, 공항 연결편, 프랑스의 기차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프랑스의 철도

- 프랑스와 유럽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는 여행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다. 특히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상을 달리는 테제베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예약이 필수. 기차역의 예약 창구 (Reservations)를 찾아가 자신이 여행할 날짜와 시간, 목적지, 좌석의 클래스(침대칸, 일반석, 일등석, 이등석)를 이야기하면 된다.

□ 프랑스의 TGV

-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전철로 채택된 TGV는 프랑스의 초고속 열차로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주요도시를 운행한다. TGV란 Train A Grande Vitesse의 줄인 말로 굉장히 빠른 기차란 뜻이다. 1981년 처음 개통되었고 최고 시속 300Km! 프랑스 내에서 리옹, 주네브, 디종 등을 운행하고 있으며,
- 많은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1997년 겨울의 선로 결빙으로 인한 TGV의 연착 소동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TGV의 노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많은 노선들을 계획, 건설 중이다. TGV를 탈 수 있는 도시는 대다수 프랑스의 대도시 이지만 특히 파리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파리의 드골 공항을 통과하는 TGV역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주요 도시와의 연결이 편리하게 되었다.

◀ 나지막하게 설치된 차량신호등 ▶



4. 환경분야

- 파리에서는 도로변이나 공원의 나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여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려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았으며,
- 거리 곳곳에 분리수거를 위한 커다란 쓰레기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쓰레기 소각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 가구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 현대화된 청소장비를 이용하여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하수도에서 정화된 물을 도로양옆으로 흘러 보내게 하여 노면의 흙, 먼지 등을 청소하고 있다.
- 프랑스 공동묘지가 샤를리 체육시설지구 옆에 두고 있으며, 또한 일반주택들도 있었으나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파리시에는 개에 대한 공동묘지도 2곳이 있었다.
- 청소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사람들은 길거리에 담배 껍초등을 많이 버리고 있어 시 당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우수투입구가 v자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우수유입이 쉬웠으며 특히 파리시내를 물청소하기 위해 물을 하루 1번 흐르게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상제리제 거리는 도로가 넓고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리 중간 중간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어 새 단장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으며, 거리 가로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지하여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을 하여 주차와 통행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길거리에 걸이를 만들어 손쉽게 가벼운 휴지나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비닐을 걸어두었으며,
- 녹색의 빈병수거통을 거리곳곳에 설치해 두었으며, 시내 일반 가정에서는 조그만 베란다에 꽃을 재배하여 배치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았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 ▶



◀ 하수도에서 정화된 물로 도로 물세척 ▶



◀ 도로 물이 잘 빠지도록 V자형 우수관설치 ▶



5. 상수도분야

- 파리의 상수시설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1860년 파리근교의 수원지에서 취수하여 파리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 상수도 관리는 1984년까지는 시에서 담당하다가 1985년부터 상수생산, 운반, 통제는 시에서 담당하고 상수공급 시설, 보수관리, 수도 계량기 설치, 요금고지서 발급 등은 개인회사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 안전한 수량 확보를 위하여 파리 근교 5개 지역에 댐이 건설되어 있으며, 양질의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상수원 오염을 대비하여 다른 곳에서(파리 동북쪽의 운하물) 취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고 함.

6. 하수도분야(파리의 하수처리장)

- 세계 어떤 나라의 도시도 파리의 하수도망과 같은 곳이 없다. 이 하수도는 2,350km로서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에 대한 지반이 정리되어 있고 종사 인원만 400여명이나 되었으며, 수도관 사설회사가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곳에는 음용수와 비음용수를 비롯하여 압축된 공기 파이프, 전화 케이블등이 묻혀 있다.
- 지금부터 약 150년전 대대적인 하수도 관리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당시 4km당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 하수도 내부는 하수도의 역사와 옛날 사용했던 기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박물관의 역할도 동시에 했다. 어쨌든 하수구는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다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정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하수구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 밖으로 나와서 마침 물이 나오고 있던 거리의 하수구를 보았는데 너무나도 깨끗했고, 매캐한 하수도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는 프랑스인들에게 하수도에 있어서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하수처리장내 하수처리현황 설명청취 ▶



◀ 하수처리장 내 지하공동구 ▶



◀ 하수처리장내 지하전시관 ▶



7. 사회복지 분야

국가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프랑스 복지제도의 축은 알로까시옹이라는 국가보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제도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제도이다. 알로까시옹제도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복지제도이다. 알로까시옹은 가족수당, 주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소득 보조금 등 4가지의 범주로 세분된다.

◦ 가족수당

임신 4개월째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육비 보조금이 있는데 아이 1인당 약 14만원 정도 책정, 지급이 되고 성장함에 따라 학비 보조금이 나온다. 그 이외에 입양할 때 받는 보조금, 홀로된 부모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 등을 들 수 있다.

◦ 주거비 보조금

이 보조금은 양육수당과 함께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며 대학생이나 학생이 주된 수혜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도 결혼한 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장애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국적이 프랑스이거나 망명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이며 주거비 보조금이나 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액수가 조정된다.

◦ 최저소득 보조금

25세가 넘어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우선 3개월 동안 매월 약 40만원에서 5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3개월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정부와의 일정한 실습노동계약 등을 거친 뒤 혜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 직장에서 실직,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는데 통상임금의 약 60%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액수가 줄어든다.

프랑스 파리지 블로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자봉던스는 국립 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양로원 및 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 시설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사회생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소득 보조금제도는 사회보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복지제도의 부적절성을 인식한 결과, 이제 소득보장이나 지위유지 보다는 빈곤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 복지제도가 변화 중에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8. 교육 분야

-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과 대학교 3년제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으며,
- 초·중등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인근 공설운동장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1학급당 인원은 25~35명 정도이다.
- 초등학교에서는 스케이트, 승마, 스키, 자전거, 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9. 국 · 공립도서관 분야

가. 국립도서관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파리를 21세기의 “알렉산드리아”로 만들자는 미테랑 대통령의 꿈이 담긴 도서관으로 대통령이 새 도서관 건설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의 야유 섞인 반대도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강행되어 이 도서관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 도서관 건물은 지하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25층이나 되는 건물 4개동이 둘러싸고 있었고 입구에서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를 가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편안히 오르내릴 수 있었다.
-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었으며, 각 자료실 입구에는 패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패스를 기계 안에 밀어 넣어야 입실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 특히 우리나라 도서관 같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느껴졌다.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진 건물이라 서고도 30% 정도만 차 있었고 건물도 들어가기 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혼한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만들어진 계단과 광장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1) 자료구성

-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장서는 2개의 주된 도서관 건물에서 재 배포 되는데, 새로운 Francois - Mitterrand 도서관은 인쇄된 책들, 정기 간행물과 시청각자료, 컴퓨터 자료 등을 소장하고 모든 원고, 조판술, 사진자료, 지도, 동전, 메달, 골동품, 공연 예술과 음악 자료는 Richelieu 도서관에서 재조직한다.

-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장서는 단행본 1,300만권, 필사본 17만권, 연속간행물 35만종, 사진 및 그림자료 1,500만점, 지도와 설계자료 80만점, 기타 메달 및 동전이 58점에 이르고 있어 소장자료의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2) 디지털 자료실

- 인쇄자료와 그래픽자료의 디지털화는 꽤 진행중이나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주로 이미지 모드로 처리되었다.
- 디지털화를 위해 선택된 자료들은 대부분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기 힘든 1차 자료와 참고도서, 저널로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자료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프랑스국립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다.

3) 이용자 봉사현황

(가) 이용시간 : 월~금 10:00~20:00

토~일 10:00~19:00

(나) 휴 관 일 : 매월 15일 휴관

성탄절과 각종 기념일 및 혁명일 휴관

(다) 이용대상

- 일반자료실 : 학생 및 일반인
- 전문자료실 : 학자, 연구원, 전문분야 종사원 등

(라) 모든 이용자에 유료 Pass(카드)제도 적용

◀ 현대화된 국립도서관 ▶



◀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된 복도 ▶



◀ 도서관 시설 설명청취 ▶



나. 풍피두 센타 공공도서관

- 풍피두 센터의 공식명칭이 “국립 조르주 풍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이고, 1971년 조르주 풍피두 대통령의 재임 중에 구상되어 1977년 1월에 개관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고, 전기, 수도배관, 에스컬레이터 까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마치 지금 한창 짓고 있는 듯한 다소 어수선했던 보이는 특이한 모습의 건물이다.
- 이곳은 6층 건물의 2층에서 4층까지 공공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점, 산업디자인 센터, 현대미술관 등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 속에 있는 도서관이라 다소 산만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공공도서관과 닮아있는 모습이였다.

- 도서관 통로 양쪽으로 서가와 열람테이블, PC가 설치돼 있었다. 우리의 도서관 같이 작은 방으로 여러 개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들이 전자 정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실 내에 있어 자료와 인터넷을 같은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서가와 서가 사이에 책을 올려놓고 볼 수 있는 받침대 등이 있어 편리해 보였고, 테이블 곳곳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었다.

1) 설립 배경

- 세계적 현대 건축가인 미국의 리처드 로저스(Ricard Rogers)와 이탈리아의 렌초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풍피두센터는 세상에 모습을 들어내었을 때 시민들의 분노는 대단하였다.
-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물론 건물 내에 숨어있어야 할 수도관, 가스관, 환기관과 대들보까지 모두 바깥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 지금 풍피두센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중요 건축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미술관 뒤로 돌아가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 파이프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미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안전을 뜻하는 노란 색은 전선이, 물을 나타내는 녹색은 수도관, 공기를 뜻하는 청색은 환기구를 상징한다.
- 내부에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전이 열리는 현대미술관, 도서관, 영화관, 각종 전시실, 회의장 등이 있어 파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전 세계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풍피두센터 도서관은 멀티미디어와 백과사전과 뉴스도서관으로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2,000석의 좌석이 있다.

2) 자료구성

(가) 소장자료

- 장서 : 350,000점, ○ 연속간행물 : 2,320종
- 지도자료 : 6,000점, ○ 악보자료 : 2,000점
- CD자료 : 1,000점, ○ Musica videodiscs : 300점
- 음향자료 : 2,700점, ○ 도큐멘타리 : 2,100점
- 만화 : 100권, ○ 소프트웨어 자료 : 200점
- 언어자료 : 1,200점, ○ 멀티미디어 CD-ROM : 200점

(나) 층별 비치 자료

- 1층 : 참고도서
- 2층 :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 3층 : 예술, 레저, 스포츠, 문학, 지리학, 역사

3) 이용자 봉사현황

(가) 이용시간

-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10:00~22:00
- 토요일, 일요일 : 11:00~22:00

(나) 휴관일 : 매주 화요일. 5월 1일

(다) 모든 이용자에 유료 Pass(카드)제도 적용

◀ 풍피두 도서관 입구 ▶



◀ 풍피두 도서관의 이색적인 분수대 ▶



10. 기타 분야

- 파리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개선문, 상제리제거리, 세느강의 유람선등은 관광자원으로써 그 가치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프랑스는 연간 300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 파리 시내에 인구가 220만명 규모로 동서 남북간 8km로서 150년전에 도시계획이 된 도시로서 아름답고 쾌적했으며, 유명제품은 보통 창업자의 이름을 쓰고 있으며,(르노, 스토로쟁 - 창업자 이름)
- 드골 공항 출구에 삼성휴대폰 선전 광고물 한국의 휴대폰 시장 개척을 위한 광고물로서 시장개척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다.
- 프랑스는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민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구 식민지 국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은 총외국인 6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정도이며, 총인구는 약6,000만명이다.
- 파리지 진입도로변은 산이 보이지 않고 넓은 평지에 농경지가 펼쳐 지고 있어 유럽의 곡창지대라고도 한다.
- 프랑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철저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의 생활인 이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 질서의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도 대단하였으며 특히 많은 짐을 가지고 앞서 타고 있는 우리일행에 대하여 TGV 발차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서두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짐을 다 치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급한 성격과는 사뭇 다른 인상적인 모습이였다.

- 긴급차량 통행시 모든 차량이 빠른 시간내 도로 좌우측으로 신속하게 비켜주는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다.
- 가정에서 10분이내의 거리에 공원, 우체국, 수영장이 꼭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 공무원은 주5일 근무, 9시 출근, 5시 퇴근, 점심시간은 2시간이다.
- 그러나, 애완견 사육으로 공원 잔디에 건분이 많이 있었으며,
-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생수는 청량음료와 같이 취급된다.
- 학교는 4월말 부활절 휴가를 2주간 실시하며, 性이 문란하고, 마약, 에이즈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 야간에는 텅빈 도시로 지하 노숙인, 걸인, 부랑인, 마약판매, 약취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연간 200일이상은 빛이 없는 기후로서 사람들이 햇빛을 보면 야외에 나와 햇빛을 쬔이고 있으며, 겨울은 11월-4월까지로서 6개월간이고, 올해는 기상이변 현상으로서 현재는 여름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금년에 폭염으로 노인 15,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프랑스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보통 3-5주의 여름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더운 여름철에 노인들만 파리시내에 혼자 남겨두어 많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따가운 여론을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듣고 있다.

◀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에펠탑 ▶



◀ 도시계획과 조경이 잘된 파리시내의 모습 ▶



제 2 절 스 위 스

1. 개 요

눈부시도록 푸른 호수와 만년설의 알프스와 함께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는 인구가 720만명으로 조그만한 영세중립국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2/5 정도이다. 지형은 대다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쓸모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세계일류의 복지국가로서 1인당 GNP가 39,000달러가 된다. 또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들은 근면하면서도 강인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산악지역에 초지를 조성하고 목축업을 시작하면서 눈으로 덮힌 만년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산을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터널 등으로 연결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들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2. 사회문화

가. 사 회

- 스위스의 사회는 자유와 보수(保守)라는 두 요소가 특색이다. 계급적인 차별은 적으나 동업조합(同業組合)과 코문(공동체적 지역사회)을 중심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찍부터 사회보장이 정비되어 있으며, 1911년에는 상해·질병에 대한 연방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이 실시되었다.
- 1947년 7월에는 노년·과부 보험이 제정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1951년에는 실업보험법이 연방법으로(사적·공적 보험도 포함) 정해졌다.

- 민병으로서 군복무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는다. 연방 헌법은 통일 스위스교회의 설립을 금지하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나. 문 화

-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독어·불어·이태리어 등 3대문화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 스위스는 종교개혁·프랑스혁명·나폴레옹전쟁 등과 같은 동란의 시기에 자유와 양식(良識)의 도피처로서 창조적인 인물들을 숨겨주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었다.

3. 환경분야

- 스위스의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 쓰레기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원 재활용 국가답게 각 가정에서는 신문지만을 모아 1주일에 한번 수거해가고 있으며, 신문 구독가정에서 폐신문지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업자나 이웃이 신고하여 시청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분리수거에 협조치 않을 때에는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 쓰레기처리는 1차로 생물학적처리를 하고 다시 화학적 처리를 하여 완전정화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 가정 주부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지, 먼 거리에 가져다 버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 근면하고 검소한 국민으로 수입물품의 70%를 재생해서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스위스가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잘 이행하고 있다.

4. 기타분야

- 목축업이 발달한 스위스는 아무리 높은 지대에 있는 농가라도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으며, 빈 농토 없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농지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변환경과 주택이 잘 조화된 스위스 농촌모습 ▶



제 3 절 이 탈 리 아

1. 개 요

고대 로마제국으로부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며, 화려한 전통과 함께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연수단이 스위스에서 차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시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짙게 깔린 한적한 저녁이었다.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모두 집으로 귀가하여 직장 동료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살아간다. 또한, 이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은 세계우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2. 지방자치제도

- 현재 20개의 주(REGIONE)와 101개의 현(PROVINCIA), 그리고 8,100여개의 자치체(COMUNE)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상 주 정부는 경찰, 공공복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장받고 있고 그외 법률에 의해 국가 업무가 주에 위임되기도 한다.
- 또 재정적으로도 자치권을 갖고 있어 주단위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국세 교부금을 받아 주정부의 살림을 꾸려간다. 주의 기관으로는 주 의회와 주 정부가 있다.
- 20개 주 가운데에서도 5개 주는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 주에 속하는데 해당되는 주는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 반도의 트렌티노·알트아디제, 프리우리·베네치아·줄리아 그리고, 바레다오스타가 이에 해당한다.

■ 코문(COMUNE)

- 코문의 인구구조는 최저 500여명에서부터 10만명이 넘는 곳까지 다양한데 적은 인구를 가진 코문에서는 여러 코문이 모여 하나의 사무처를 마련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다.
- 코문이 맡은 일은 공중보건위생, 도로와 학교시설 건설, 교통과 건축물에 대한 규제,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와 사무, 그리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등이다. 그 외에도 수도, 가스등의 공영사업부분을 관장하기도 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일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교직원의 임면, 급여,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맡고 코문은 물리적인 지원을 맡고 있다.
- 코문 이사회는 코문의 인구밀도에 따라 2~14명의 이사가 선임된다. 이들이 하는 일은 행정사무 감독, 의회 조언, 의회의 결의안 실행 등이다. 그리고, 직원의 임면, 계약체결외에 의회가 개회중일 때는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하고있다. 코문 수장은 코문을 이끌어가는 코문의 대표자로 4년의 임기동안 코문의 재산과 행정상의 관리를 맡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부여한 법령을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다.

3. 사회의 특징

- 이탈리아의 지리적인 특징은 지중해에 접해 있으면서 유럽 대륙에서 튀어나온 듯한 긴 장화 모양을 한 반도라는 점이다. 크기는 한국의 1.5배에 가깝고 인구는 약 5,700여만명이다. 북부는 유럽대륙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접하고 있고 남부인 시칠리아 섬은 아프리카 대륙의 튀니지를 바라보며 동부로는 아드리아 해를 가운데 두고 유고와 알바니아를 마주한다.
- 이렇듯 이탈리아인들 사이에는 '북부는 유럽대륙', '남부는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한편, 기후도 남과 북이 달라 남부는 해수욕을 즐기는 시기에 북부에서는 스키를 탈 정도로 구분이 확연하다. 산업구조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남부는 관광, 농·어업 부분, 목축업과 같은 산업에 주력하고 북부는 공업과 상업, 예술 부분이 발달해 있다.
- 남북이탈리아 간의 갈등도 대단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갈등보다도 더욱 심하다고 하며 북이탈리아 소득이 3만달러 정도이지만 남이탈리아는 이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한다.

4. 교통분야

1) 교통사정

- 이탈리아인의 운전습관은 무척 난폭하기로 소문나 있다. 또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노상주차가 많아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운전은 차량 혼잡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내에서 이탈리아 공항까지 약 34km 정도이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50여분이다. 이탈리아는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역시 심각한 도로난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의 도로는 폭이 좁고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자가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으로 빠지게 되면 자동차로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 시내의 제한속도는 50km이고 경적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2) 교통수단

- 이탈리아의 주요 대중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다. 지하철노선은 그렇게 많지 않아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철도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 로마에는 종착역과 간이역이 있으며 앞쪽은 승객이 이용하고 뒷쪽은 화물을 싣는 것이 보통이다. 운행은 대체로 정확한 편이고 열차의 종류도 다양해 이용에 편리하다. 그러나 교통기관의 파업이 잦아 다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는 우측통행이며 그 외의 규칙과 교통표시 등은 유럽 다른 나라와 같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평균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가 대부분이며, 특히 대우의 마티즈가 눈에 많이 띄었으며,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 대다수 옛 건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키고, 승용차용을 규제하기 위해 주차금지, 일방통행 등과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
- 철도는 이탈리아 반도를 모두 이어주는 교통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 때 편리하고 대부분 국유이다. 국유 철도의 비율은 전체의 약 82%에 달하지만 나머지도 민간기업의 철도가 아닌 지방행정기관에 속해 있다고 한다.

-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이 버스는 100km, 승용차는 150km(3차선) 120km(2차선)으로서 차마다 뒤편에 둥근 원안에 국도와 고속도로에 대한 제한표시를 붙여 다니고 운행한다.
- 이탈리아 승용차들은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달고 다니고 있으며 또한 일반버스는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오도록 되어 있다.

◀ 이탈리아 거리를 달리고 있는 대우 마티즈 ▶



5. 환경분야

-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집하장에 모아진 쓰레기는 위탁된 회사에서 유형별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 재활용, 재생품으로 처리를 잘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전기시설 폐품등은 시에서 별도 폐기처리하고 있다.
- 대다수 시민들이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 ▶



6. 사회복지 분야

-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토대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롬바르디아 지방의 경우 주민이 납치나 강도 등의 범죄로 장애가 되거나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관할 시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당한 노인에게 최대 300유로(1유로 1,357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에 도둑이 들 경우 파손된 문이나 가구수리는 물론 최소 100유로에서 1,500유로까지 분실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주고 있다고 한다.
- 시범적으로 몇개 시에서는 손해배상 내역에 금전적 보상외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과 무료상담도 포함돼 있다.
- 광역정부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노인을 위한 사회의료보호서비스 관리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의료 및 사회보호 계획의 준비 및 그 제공에 관한 특별입법안을 제안한다.

7. 건축분야

- 로마시의 초대형 건축물들은 기초작업부터 완벽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건축 설계법을 이용하는데 기초바닥에 6m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다시 6m의 모래를 채우고 기초공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하공사가 건축비의 2/3을 차지하며 건물들이 균열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8. 교육분야

- 생후 3개월~3세까지는 탁아소에 맡겨지고 있으며, 5~6세에는 유아원에 가며, 7세부터 초등학교 5년, 중학교3년은 의무교육제도이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졸업은 20-3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9. 기타분야

- 자동차 공업도 발달하여 이탈리아의 자존심인 페라리 승용차는 경주용 승용차로서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며 6000CC급이며 가격만도 9억원으로서 3초이내에 100km까지 주파가 가능하다고 한다.
- 건물축조, 도로신축 기술이 뛰어나며 스파게티와 피자가 고유음식으로서 스파게티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소스로 토마토를 좋아하고 밀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3모작을 한다.
- 과실로는 오렌지와 올리브가 유명하며 가는 곳마다 올리브나무가 있었으며 토양조건이 좋은 땅으로서 여름이 건조하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나 수자원이 풍부하여 가뭄이 없다.
- 최근에는 세계 최대 포도주 생산국이 되었으며, 국민소득은 2만5천달러로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며 경범죄가 없다고 한다. 침뱉는 행위,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 음주운전등은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사고가 나면 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그전에는 최대한 개인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한다.

- 농촌환경은 주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게 없어 친근하게 느껴지며, 농촌지역은 대체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았으며 이태리 지역의 특색이 과거 역사에서 보듯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살아온 민족이라 그런지 산 위에 취락들이 많이 보였으며 성을 중심으로 주위로 집을 지은 흔적들이 많았다.
- 고속도로마다 오토그릴이라는 휴게소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단순한 간이분식점 정도로 밖에 안되는 것과는 달리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따로 있도록 하여 이태리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를 하고 있었음
- 르네상스는 모든 예술이 인간중심으로 바뀌는 시대로서 피렌체에서 첫 출발을 하여 로마로 번져 나갔다고 하며 이때에 인물로는 미켈란젤로, 다빈치, 마키야벨리, 단테, 갈릴레오, 가리발디 등이 있으며 오페라, 프랑스 궁중요리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밀라노를 Mayland라고 하며 피렌체를 꽃의 도시라고도 한다.
- 나폴리항에 계란성은 몇 년 전에 서방 선진7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하나 한때는 성과 감옥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며, 이곳에는 이태리 민요 오! 솔레미오, 산타루치아(성인 루치아를 의미)등과도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으며,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특히 남부지역은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에 빨래가 널려있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 서기 79년에 일어난 폼페이의 베스비어스 화산의 폭발로 한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린 것을 한 농부의 발견으로 오늘날 발굴해 놓은 폼페이는 그 당시의 처참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의 유물로 보아 일찍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 이미 목욕탕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목욕탕이 있었으며 빵굽는 시설, 멧돌 ,수도관, 광장, 수레가 다니는 길 등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문화를 보여 주었다.

- 나폴리 항구는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항구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다. 미항에 대한 선정기준이 뱃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니 알만하다. 소렌토 마을은 이탈리아의 민요에 나오는 마을로서 그 절벽이 유명하였다. 멀리서 바라보는 소렌토 항구의 절벽은 과연 일품이었다. 거기에 떠나가는 배는 그림 같은 모양을 연출하였다.

◀ 이면도로를 잘 활용하여 주차한 모습 ▶



◀ 깨끗한 거리에 질서정연하게 주차한 이륜차의 모습 ▶



◀ 전원적인 이태리 농촌모습 ▶



Ⅲ. 결 론

- 우리 연수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연수일정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10.1일부터 9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3개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 연수기간은 9일이지만 파리 드골공항 도착이 오후 6시반이고, 귀국 하는 날 하루 전에 출발해야 하는 관계로 사실상 7일간의 일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현장방문 등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다.
- 이번 국외연수는 공식적인 기관방문과 의전행사 등을 통한 정보교환도 중요하지만 짧은 일정이라 실질적인 현지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생생한 현지방문을 통한 체험위주로 일정을 계획하면서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다소 피로해진 감도 있었으며, 현지방문시 많은 이동시간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행군해야 하는 일정속에서도 큰 대과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 특히 선진국 시민들의 생생한 현지모습을 알고자 많은 곳을 찾았으며, 금번 연수기간 중 초점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므로 선진국의 문화와 공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많은 현장을 방문하였다.
- 그 중 프랑스의 퐁피두 문화센터, 국립도서관, 루브르박물관, 파리 하수처리장, 상원의사당, 스위스의 융프라우 관광지 개발, 이탈리아의 고대유물 발굴현장인 폼페이, 현대 르네상스 예술의 보고인 성베드로 성당 등을 둘러보았다.

- 많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대비가 되었다. 석조문화가 발달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과거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오늘날 건축물 하나 하나에도 중·개축시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다. 한마디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으로 오늘날 관광대국이 되었으며 축복 받은 국가들이었다.
- 파리의 도시계획과 공원 등은 15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유럽선진국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배려와 특히 보존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문화적 차이도 느낄 수 있었다.
- 프랑스는 자기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하였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국민들의 검소함은 외형적인 면에서도 나타났으며
- 프랑스의 하수처리시설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오수에 대한 지면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지하에 배출가정에서 유입되는 관에 대한 번호가 있어 오수 방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오염방지가 되고 있었으며, 퐁피두 문화센터의 현대적인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심속에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한 공원은 프랑스 사람들의 여유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반면 학교는 조그만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사당 공원에서도 학교 체육수업을 받고 있었다.
- 스위스 국민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한 도전으로 산지를 개발하여 초지를 만들고 만년설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만든 스위스인들의 도전의 역사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할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지도 잘만 이용하면 좋은 관광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우의 마티즈 소형 자동차를 보면서 자기분수를 모르고 허세만 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사뭇 대비가 되는 듯했다. 자기나라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특히 언어도 자기나라 말만 사용하고 웬만한 간판 하나만도 한국은 외국어 투성인데 반해 이 나라에서는 자기 것을 지키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간판은 한 업소에 하나씩 그저 건물에 글씨정도만 써넣은 업소가 많았다.
- 선진국의 화장실 문화를 보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라 통상적으로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요금을 받고 있어서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무척 불편하였으나 세면대에 물은 감응식으로 손을 가져가거나 밟으면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절수하는 정신과 타인에 대한 위생을 배려하는 면이 우리와는 달랐으며 식수는 일체 사먹어야 하는 유럽 생활이 다소간 불편하였다.
- 그리고 GNP가 세계에서 5위이내로 들어갈 정도로 소득이 아주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현지 국민들은 소형차를 이용하는 등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현지 연수를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배워서 실천해야 할 일이다.
- 끝으로, 우리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주보고 견문을 넓혀서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우리 지역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